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34호> 2019년 3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 満)

작년 한 해동안 오이타현에서 여권을 발행한 수는 25,472건으로 6년만에 25,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전년대비 14.8% 증가하여 증가율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해외 출국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새로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년에는 일본 여권 사증면의 디자인도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대표작의 후지산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덕분에 해외로 떠나는 즐거움이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오이타현 소식>

아시아 비즈니스 연구회 개최



지난 2월 26일, 오이타현 아시아 비즈니스 연구회와 오이타 ASEAN 교류 촉진 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ASEAN 각국의 비즈니스 찬스와 외국 인재 활용’을 테마로 제조업 및 상사, IT, 인재 파견, 행정 관계자 등 다양한 직종에서 많은 분들이 참가해주셨습니다.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활약 중인 APU 졸업생을 강사로 초빙해 ‘ASEAN 3개국에서 일본 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를 살린 비즈니스 찬스’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연구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시아 각국으로의 사업 전개와 현내 기업 단체 간의 정보 교환 및 교류의 장을 만들어 긴밀히 연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이키시 소식>



What`s up, OITA! 한국어판 제32호(2018.11)부터 현내 각 시정촌의 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히타시에 이어 이번 호는 사이키시로부터 온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사이키 봄 마츠리>

이틀간에 걸쳐 열리는 ‘사이키 봄 마츠리’는 스테이지 이벤트와 사이키시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가게들도 출점하며, 지역 주민은 물론이며,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첫째 날 저녁에는 전설로 내려오는 ‘키쿠히메 행렬’이 시작되며, 현시대로 되살아난 키쿠히메가 성하마을을 행진합니다. 약 2만개의 대나무 등불이 역사와 문학의 길을 환하게 밝히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둘째 날 오전은 벚꽃나무 길을 에도 시대 의상을 몸에 걸친 약 100명의 참가자가 다이묘 행렬을 재현합니다. 오후부터는 일반 기업 및 단체에서 약 600명이 참가하는 다이묘 행렬이 사이키의 메인 거리를 행진합니다

▶기간 : 3월 30일 (토) ~ 31일 (일)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34호> 2019년 3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나카츠 성하마을 기모노 산책



옛 정서가 넘치는 나카츠 성하마을, 그 중 절이 많아 붙여진 지명인 테라마치(寺町)는 기모노 차림이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기모노를 빌려입고 역사가 느껴지는 건물, 반듯한 돌이 깔려있는 산책길을 걷다보면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붉은 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우간지 절(合元寺)의 붉은 벽은 원래는 하얀 벽이었으나 이곳에서 펼쳐진 전투로 인해 하얀 벽이 피로 물들었고 이후 몇 번이고 색을 덧칠해도 혈흔이 드러나자 결국 붉게 칠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그 유래를 알지 못한 채 붉은 배경이 사진에 잘 나올 것 같이라며 벽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으나, 유래를 알게되자 괜히 오싹한 기분이 듭니다.

마침 여자 어린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히나 마츠리 기간이라 여기저기 장식되어있는 히나 인형이 눈에 띄니다. 후쿠자와 유키치 옛집에도 히나단이 설치되어있고 정원의 매화 나무에도 히나 인형이 걸려있는 등 성하마을의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성하마을을 기모노 차림으로 걷고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습니다. 그 때마다 건네주시는 다정한 한마디 한마디로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모노 체험 요금 : 4000엔

오이타 100% 즐기기! 나카츠 석양&야경 명소

오이타의 관광지가 소개된 여행 책을 읽던 중 한 장의 사진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푸른 연못 위에 세워진 빨간 토리가 인상적인 나카츠의 코모 신사(薦神社)였습니다. 하치만궁의 총본산인 '우사신궁'의 조궁(祖宮)으로도 불리며, 미스마이케 연못(三角池)을 신령이 깃든 신체(神体)로 모시는 신사라고 합니다 여행 책 속 사진 한 장만 보고 찾아가면 코모 신사는 실제로도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연못 위 외롭게 서있는 토리가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번지는 붉은 빛에 빠져있으니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파워 스폿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싶었습니다.

나카츠를 대표하는 하치멘산 산(八面山)도 석양과 야경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해질녘 '석양을 바라보는 언덕'에 올라서서 보는 붉게 물드는 산맥이 참 장관입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질 즈음 전망대 '천공의 길'에 오르면 불빛으로 수놓인 야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집니다. 3년 전 일본 야경 유산으로도 선정된만큼 탁 트인 시야와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그동안 몰랐던 나카츠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